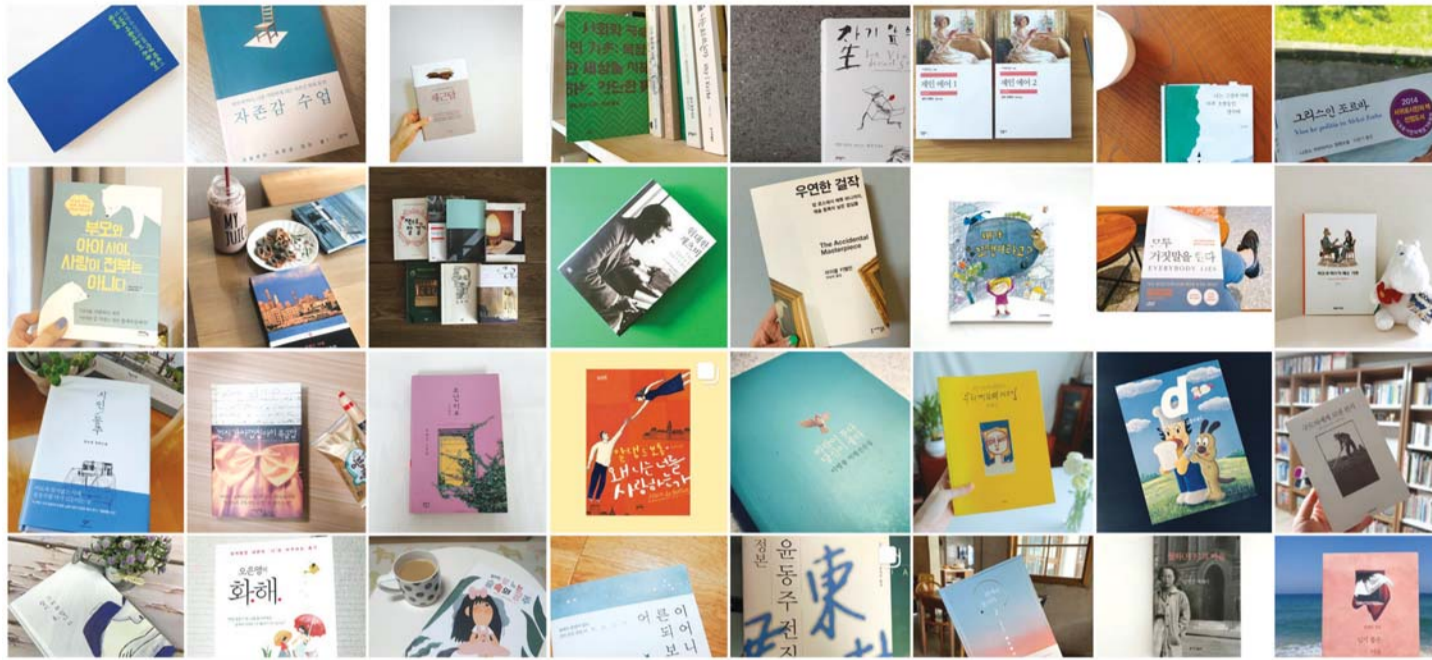


#북커버챌린지

게시물 12.9K개
팔로우
매주 인기 게시물을 확인해보세요

관련 항목: #bookcoverchallenge #7days7covers #책소개 #책



Home, Search, Add, Heart, Profile icons

요즘 무슨 책 읽으세요?

광주시 북구 일곡동에 사는 회사원 홍호선(33)씨는 지난 1일부터 헤르만 헤세의 '데미안', 윤정은의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고 싶어요' 등 매일 한 권씩 인스타그램에 책 표지 사진을 올려 올렸다. 인스타그램이 구절 하나를 적고 #7days7covers라는 해시태그를 달았다. 그는 요즘 소셜미디어에서 유행 중인 독서 문화 확산 운동 '북 커버 챌린지'에 참여 중이다.

홍 씨는 "여자친구의 지목으로 #북 커버 챌린지'에 참여하게 됐다"며 "보통 이런 독서 릴레이는 한두 주 정도 지나면 사라지는 편인데, 이 챌린지는 꽤 오랜 기간 주변의 많은 사람이 하고 있다"고 말했다.

코로나19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계속되면서 외출은 줄이고, 집에서 생활하는 시간이 늘고 있는 요즘, '독서 챌린지', '책 읽기 레이스' 등 책과 관련된 다양한 이벤트가 열려 눈길을 끈다. 인스타그램 등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책을 소개하는 '#북 커버 챌린지' (#7days7covers)가 일반인들 사이에서 유행하고 있고, 광주시교육연구정보원은 범시민 책읽기 레이스 '빛고을독서마라톤'을 진행하면서 독자가 다양한 방식으로 변지고 있는 것.

'북 커버 챌린지'는 7일간 소셜미디어에 하루에 한 권씩 책 표지 사진을 올리는 캠페인이다. 설명도, 독후감도 없이 이미지만 올리고 하루 한 명 소셜미디어상의 '친구'에게 동참할 것을 권유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다양한 형태로 변형돼 변하고 있다. 올 초부터 인스타그램과 페이스북을 중심으로 시작됐는데 코로나 19 사태로 집에 틀어박혀 있게 된 사람들이 온라인으로 놀 거리를 찾으며 확산되는 추세다. 7일 현재 인스타그램에서 '#북 커버 챌린지'를 검색하면 소설·에세이·자기계발·종교 등 다양한 분야의 책을 담은 게시물 약 12만8000개가 뜬다.

개강이 미뤄져 강제로 집콕 생활을 하고 있는 대학생 나유영(여·20)씨는 집콕 생활의 지루함을 달래기 위한 방법으로 독서를 선택했다. 자신이 읽은 책의 표지를 SNS 인스타그램

인스타그램 등 SNS에 '#북커버챌린지' 유행 7일간 하루에 한권씩 책 표지 사진 올려 소개 시교육연구정보원 '빛고을 독서마라톤' 진행

에 올리면서 '#북 커버 챌린지'라는 해시태그를 달고 친구에게도 책을 추천하면서 지친 마음을 달라고 있다.

지난해 '소설가 50인이 뽑은 올해의 소설'에 뽑힌 황정은 작가의 '디디의 우산', 말콤 글래드웰이 쓴 소통과 이해에 관한 책 '타인의 해석' 등을 올린 30대 회사원 박일우씨는 "최근 코로나 19로 재택근무를 하게 되면서 시간이 남아 뭘 할까 생각하다가 책을 집어들었다"며 "첫날에는 평소에 읽고 싶었지만 시간이 안나 읽지 못했던 소설책을 인스타그램에 올렸고 둘째날에는 최근 출간된 신작을 올렸다"고 말했다. 이어 "7일 동안 책 사진을 올려야 하는 것이 조금 부담스럽기도 했지만 다른 사람들이 올린 다양한 책을 간접적으로나마 접하게 되어서 좋았다"고 덧붙였다.

광주시교육연구정보원(원장 이상채)도 최근 2020년 범시민 책읽기 레이스 '빛고을독서마라톤'을 시작했다. 매해 7만여명이 참여하는 광주지역 대표 독서행사인 '빛고을독서마라톤'은 책 읽는 공동체 문화 형성을 위한 범시민 독서운동으로 지난 2006년 시작돼 올해로 14회째를 맞는다.

이 프로그램은 오는 11월 5일까지 진행되며 광주지역 초·중·고등학생, 학부모, 일반 시민 등을 대상으로 한다. 운영 종목은 거북이구간(3km), 악어코스(5km), 토끼코스(10km), 타조코스(15km), 사자코스(2만1097km), 호랑이코스(3만1646km), 월계관코스(4만2195km) 등 총 7구간이며 독서일지 누적 기록에 따라 최종 완주 구간이 결정된다. 참가 신청은 '빛고을독서마라톤' 홈페이지에 할 수 있으며 완주한 참여자에게는 독서일지량에 따른 완주증이 수여된다.

/전은재 기자 ej6621@kwangju.co.kr

드론 띄워 앵글에 담은 보성 12개 마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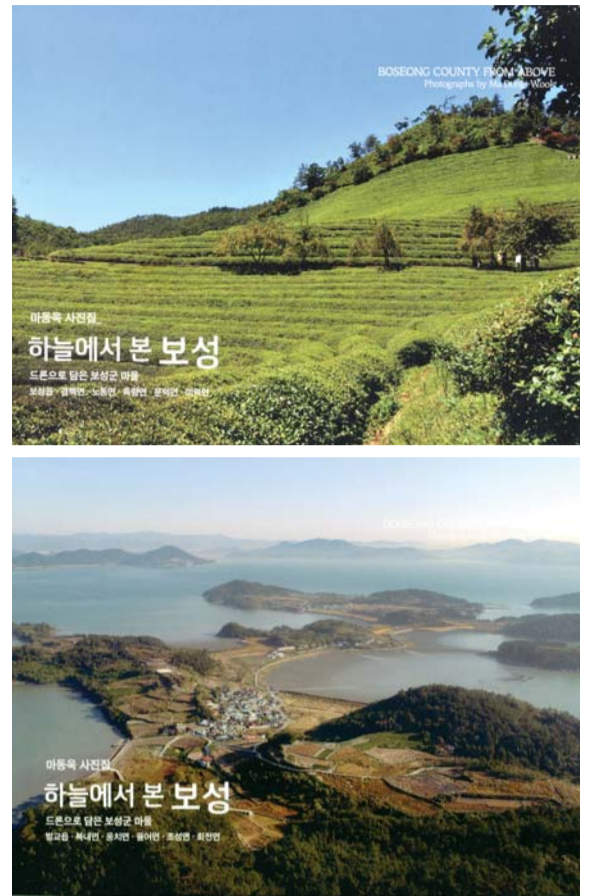
마동욱 작가, '하늘에서 본 보성' 펴내...2년 6개월 촬영 2000컷 담아

하늘에서 내려다본 주암호의 모습이 웅장하다. 푸른 하늘과 계단식의 녹색 차밭이 어우러진 보성다원 풍경도 눈길을 끈다. 드론 드론 자리한 집과 논밭, 산이 어우러져 마치 한폭의 설치미술 같은 울어면 금천리 석천 풍경, 마을 정자에서 환한 웃음을 터트리는 아이와 바쁜 농사일 중에 잠시 휴식을 취하는 할머니 모습도 인상적이다. 마동욱 사진작가는 최근 2년 6개월간 보성을 수없이 방문했다. 보성읍을 비롯해 겸백면 등 12개 읍·면 마을 한곳 한곳을 빠뜨리지 않았고, 마을의 모습을 드론으로 촬영했다. 하늘에서만 찍은 건 아니다. 마을의 골목길을 돌며 근거리에서 동네 사람들의 모습과 마을의 상경을 앵글에 담았다. 그 결과물은 사진집 '하늘에서 본 보성-드론으로 담은 보성군 마을' (2권)로 묶였다. 1000여페이지에 달하는 이번 사진집에는 모두 2000여장의 사진이 실렸다.

'마을 사진가'로 불리는 마 작가가 찍은 마을 사진은 지금까지 80만장이 달한다. 20~30대는 서울구치소 교도관, 소방관으로 근무했고, 1990년대에는 서울에서 사진관을 운영하기도했던 그는 1988년 처음 고향 '장흥' 사진을 찍었다. "고향이 점점 작아지는 게 아쉬워서"였다. 서울 생활을 접고 낙향 후 그는 30년간 고향 사진을 찍었고 '야, 물에 잠길 내 고향', '탐진강의 속살' 등의 사진집을 펴냈다. 또 '탐진강과 탐진강사람들' 등의 전시회를 열었고, '목포에서 문산까지 한달간 철길을 걸으며 동행한 동향 출신 이대홍 시인이 글을 쓴 '그리운 사람을 기차 타고 온다'도 펴냈다.

수십년 마을 사진을 찍으며 아쉬웠던 건 '마을을 입체적으로 담는 데 한계가 있다'는 점이었다. 그러던 차, 드론이 나왔고 4년 전부터는 전남의 시군마을에 드론을 띄워 마을 사진을 촬영하며 마을 어르신들의 삶을 사진과 동영상으로 담고 있다.

대한국원을 표지로 삼은 '하늘에서 본 보성' 1권에는 보성읍·겸백면·노동면·득량면·문덕면·미력면의 풍경이 담겼고 벌교읍 장도리 대촌마을이 표지인 2권에는 벌교읍·북내면·웅치면·울어면·조성면·회천면 등이 실렸다. 사진집에는 주암댐으로 사라진 마을과 주암호 주변, 보성만과 득량만 바다, 드넓은 들녘이 시원하게 펼쳐진 마을 등이 담겼다. 또 사진 이외에도 보성군 12개 읍면, 각 마을의 역사에 관해 김희태 전남도문화재 전문위원의 글



도 함께 실는 등 자료적 가치도 높였다.

수천년을 이어오며 역사를 만들어가고 마을 사람들의 이야기를 품은 시골 마을들은 점점 사라지고 있다. 누군가는 기록으로 남겨 그 역사를 기억해야 한다. 마 작가가 '더 늦기 전에' 카메라를 들고 남도 이곳저곳을 다니는 이유다. 마 작가는 "사진 기록으로/사라져가는 마을이 일그러진 얼굴/아프다 호소하는 가련한 표정/반세기 후쯤이면 아예 사라져갈 마을 속내에 담긴 진득한 아픔과 고독을 담으려 애써온"(김선숙 시 '사진가 馬씨의 꿈' 중) 그런 사람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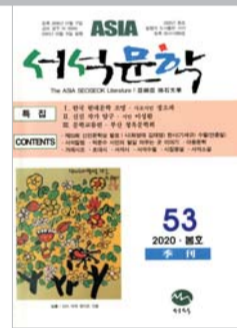
'하늘에서 본' 시리즈는 2016년 고향인 장흥을 시작으로 영암과 강진을 거쳐 이번에 보성까지 네 지역이 출간됐다. 장흥과 영암의 사진은 군청 홈페이지에서 만날 수 있다. /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문예지 'Asia 서석문학' 봄호

지역에서 발행되는 문예지 'Asia 서석문학' 봄호(통권 53)가 나왔다.

이번 호에는 특집으로 시조시인 정소파(1912-2013)를 조명했다. 광주시 남구 사동에서 태어난 고인은 18세에 동인지 '개벽'에 '별건곤'을 게재하며 작품활동을 시작했으며 이후 동아일보 신춘문예 시조 부문에 당선됐다. 시조집 '산향일기', 시집 '마을', 동시집 '정소파 동요 동시집' 등을 펴냈으며 호남시조문학회 회장 등을 역임했다. 이번 문예지에는 '春城亭, 梅香의 詩' 외 9편이 수록됐으며, 호남시조문학회를 창립해 지역문학 발전에 기여했던 고인의 문학에 대한 열정을 기렸다.

다른 특집 '신진 작가 탐구'에서는 시인 이성환을 조명했다. 문학교사서(장비) 집필위원으로도 활동했던 시인



의 문학과인의 인연, 지향 등을 엿볼 수 있는 글이 실렸다.

우수 문학 교류면에서는 부산 청옥문학회 회원들의 작품을 소개했다. 박준선 시조시인의 작품을 비롯해 김남숙·오란·자·엄경덕 시인의 시, 김형진 수필가의 수필이 수록됐다.

'박준수 시인의 발길 머무는 이야기'는 '경전선 기차여행'을 주제로 한 글이다. 유년시절 추억여행을 생각하며 떠난 기차여행이 선물한 아련한 기억과 풍경이 생동감 있게 펼쳐진다.

이밖에 책에는 제53회 신인문학상 수상자인 최영태·김태영 시인, 한시부문 기세규 시인, 수필 부문 안종일 수필가 등의 작품과 당선소감, 심사평이 담겨 있다.

/박성현 기자 skypark@kwangju.co.kr

Advertisement for Beltone hearing aids. Includes text: "인터넷 검색창에 국제보청기를 보세요", "필요한 소리만 똑똑히 들립니다.", "작은 사이즈로 착용시 거부감이 없습니다.", "정직한 우수상품 가격부담이 없습니다." and contact numbers for Seoul and Suwon branches.

Advertisement for Bentley Hotel. Includes text: "각종 연회 행사"는 Bentley Hotel과 함께!!, "각종 '세미나, 가족모임(피로연, 칠순, 팔순 등)'을 최고의 서비스로 모십니다.", "최고의 맛과 최상의 서비스로 아름다운 추억을 선사해 드리겠습니다." and contact information for reservations.